

D Saturday, October 8, 2005

# 일주일 지나도 찰랑찰랑 “종긴 종구나”



헤어스타일리스트가 특수 샴푸로 헤어 클린징을 하고 있다.



포도씨와 아몬드 오일, 비타민 성분이 블렌딩된 오일을 스프레이하고 있다.



두피케어가 끝난후 손상을 극소화하는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려주고 있다.

## 생생리포트-기자가 간다

### 미국스파 두피케어

솔직히 말하자, 공중 목욕탕에서 때미는 거면 뭘지 무슨 목욕에도 유행이 있나며 ‘스파 문화’에 타박을 놓는 아들도 한번쯤은 꿈꾸지 않던가. 아로마향 가득한 캔들 육조안 장미꽃잎 등등 떠노는 그곳에 잠시 피로한 몸 맡기고 누워있다 아로마 테라피니, 스웨덴 마사지하는 서비스 받으며 일상에 지친 몸 한번 호사해보면 어떨까 하는 상상 말이다. 화장품 업계마다 앞다퉁 이름도, 용도도 다양한 스파용품을 내놓고 있으며 최근엔 단순한 스파를 넘어선 메디스파(Medi spa)라는 개념으로까지 목욕문화는 진보에 진보를 거듭하고 있다.

### 가운뎃고 전용베드에 누우니 전문 헤어스타일리스트가 샴푸-마사지-마스크-열처리

더욱이 단순히 얼굴 마사지하고, 몸 지압 받는 정도의 스파가 아닌 최근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요란하게 흔들며 두피케어니 풋 케어니 하는 다양한 이름까지 내놓고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인타운 목욕탕 문 열고 들어 서듯 스파라고 이름 붙은 그곳에 쉽게 발 들여 놓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목욕문화 하나만큼은 한국이 최고지 하는 자부심(?)에서부터, 어쩐지 스파하면 엄청나게 비쌀 것이라는 선입견까지. 그뿐 아니다. 서비스 하나마다 요금이 척척 올라붙을게 틀림없는 미국 스파를 이용한다는 것은 꽤나 용기가 필요한 모험에 가깝다.

그러나 최근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목욕탕이란 거추장스런 옷을 벗어버리고 이름만큼이나 상쾌·유쾌·발랄하게 변신을 하고 있는 스파, 그 럭셔리함의 한 면에 자리 비집고 앉아보았다.

그날은 목요일 오후, 후끈한 더위 알갱이들이 공중을 유포하던 2시였다. 식을 줄 모르는 인디언 서머 한가운데 신개념 스파에 대한 부푼 기대를 안고 문을 밀고 들어선 곳은 셔먼옥스 웨스트필드 샴핑몰 내 위치한 아스펙 뷰티 스파(Aspect Beauty Spa).

이곳에서는 보톡스를 비롯, 제모, 레이저 주름제거 등 성형외과에서나 받을 수

있는 미용기술과 함께 스킨케어, 염색, 두피케어, 필링 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 많은 서비스중 기자가 선택한 것은 두피케어(Scalp Treatments).

여자들을 끊임없이 부지런하게 만드는 트렌드가 최근엔 피부결 고운 것도 모자라 머릿결 고운 것까지 쟁기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기적인 두피케어로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여주인공들의 헤어가 하나같이 반짝반짝하다는 말을 익히 들은지라 그 ‘찰랑거림’에 도전해보기로 했다.

〈5면에 계속〉



▲오일 마사지와 특수 헤어팩을 한 상태로 열처리 기구에 앉아 있는 기자.